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길림성 기독교신학원 설립추진

5월 정기 당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교회는 중국 길림성에 기독교신학원을 설립키로 결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정기 당회에서 길림성 기독교신학원 설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길림성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으로부터 길림성의 수도인 장춘시에 한국인의 손으로 정규 목회자를 양성하여 중국의 삼자교회를 시무할 수 있는 신학교 설립과 운영을 학락 받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달 당회장 신성중 목사와 기획실장 윤명식 장로가 현지를 방문하여 그곳 사정을 정확히 파악, 당회에 보고함으로써 길림성 기독교신학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신학원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와 기숙사를 짓는 일인데 부지는 길림성 수도인 장춘시에 인민 정부가 제공하고 한국교회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약 6억원의 건축비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중 2억원 정도를 충현교회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 착공 6개월 후에는 1차년도 학생을 모집, 개학하여서 300명이 되는 3차년도에는 건축을 완공할 계획이다. 3년후 부터는 매년 100명씩 졸업하는 조선인 및 중국인 졸업생을 삼자교회가 인정하는 목사로서 교회를 합법적으로 봉사케 할 계획이다.

길림성 기독교신학원 설립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바르게 교육시켜 그들로 중국 내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할수만 있다면 그리고 보다 활발하게 북방선교의 기회가 된다면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필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특별위원회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고문 / 김창인 목사
· 준비위원장 / 신성중 목사
· 서기 / 윤명식장로 회계 / 김영재장로
· 위원 /
우기전장로 노광현장로 오태희장로
김차생장로 하대선 장로 오진국장로
· 실행위원 /
목사 : 최인근 홍창민 김은태
안수집사 :
이병옥 임무천 강봉수 최기홍 고병국
진홍용 이정우 이승철 최운덕 김준권
손철 김구형 권명옥 정태두 김기철
신재성
권사 :

안운진 오희명 이현실 정봉주 김용순
교회주 김상순 김석운 남수현 남정애
박영엽 박옥식 백석심 서인희 손명순
신일순 오봉녀 원길자 원도화 유순녀
유정수 윤재춘 이혜숙 장영옥 전순자
정경자 최미정
서리집사
권철 김문섭 김진경 김연근 김영근
김일주 김진호 김형근 박종민 엄광영
이찬욱 정래부 조홍진 최동규 최지운
추병창 박도윤 김명환 김용숙 김효저
금호순 박길녀 박삼순 박은숙 이소현
이해영 조추자 최규 최정희

제31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이번주 수요일부예배는 갈릴리홀

제31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5월 9일(월) 오후 7시 30분부터 12일(목)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금번 기도회는 전국에서 약 3천여명의 목사와 장로가 참가할 예정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상 경립을 위한 다짐의 시간으로 삼을 것이다.

새벽기도회와 오전, 오후 강의를, 그리고 저녁집회로 계속되는 3박 4일간의 모든 진행과 담당은 총회 임원들과 실무진이 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에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5월 11일(수) 오후 강의를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강사로의 장차남, 서성수, 정석홍, 정성구, 김의환, 고영민, 최기재, 박명수, 김덕진 목사 등이다.

전국목사 장로 기도회는 우리 교단에 소속된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서로 교제하는 우리 교단의 큰 행사 중 하나이다.

대회진행관계로 이번주 수요일부예배는 갈릴리홀에서 드려진다.

교역자 보직 변경

5월 정기당회에서 성경연구원 지도를 윤삼중 목사에게 장우천 목사로 보직 변경하였다. 따라서 윤 목사는 고등부 지도로 맡게 되었고 교육연구소 지도를 하던 장 목사는 성경연구원 지도를 겸하게 되었다.

여름단기선교훈련 신청 마감, 다음 주일까지

'94 여름 단기선교훈련 참가 신청이 다음 주로 마감된다. 42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본 훈련생은 충현교회의 대학·청년·일반성도들 중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모집 안내서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금 100,000원과 함께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단기선교훈련은 태국으로 가며 8월 2일부터 11일까지 9박 10일이다. 경비는 1인당 80만원이며 교회에서 30만원을 보조해 준다.

가정의 달 맞아 가정세미나 계속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새가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정세미나가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에도 계속 된다.

지난 주일에 실시한 세미나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오늘은 김수지 교수(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 남서울교회 집사)가 '크리스천의 부부생활'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한다.

다음 주일에는 새가정부 지도 박정규 목사의 강의로 이어진다.

사랑의 헌혈-5월 15일, 본당 앞 광장에서

교회는 서울특별시 남부적십자 혈액원에서 우리 교회와 생도들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자 요청해 오며 따라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씩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일시 : 1994. 5. 15(주일)
오전 8:00~오후 3:00
· 장소 : 본당 앞 광장
· 대상 : 전교인

♥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남자는 체중에 50Kg이 많고, 여자는 45Kg이상으로 정상혈압(최고 100-200mmHg, 최저 60-100mmHg)인 16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 헌혈자에게 주는 혜택

1) 혈액의 예치, 헌혈증서 발급
모든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사람도 수혈이 필요할 때 혈액형에 관계없이 헌혈량 만큼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무료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2) 건강 진단의 기회
헌혈 후 RH 음성혈액형, B형 간염항원, C형 간염항체검사, 간기능 검사(S-GPT)를 일차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해준다.



금주의 청지기 훈련 및 연속기도

청지기훈련 - 5월 12, 13일 양일간: 16, 17, 18교구
24시간 연속기도회 - 14교구

94년도 청지기훈련이 시작됐다. 금주의 훈련 담당자는 5월(목) 오후 6시 30분까지 교회에 집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명찰 및 훈련복을 지급받고 인원점검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오후 7시 30분에 기도원행 버스를 타게 된다.

충현기도원에 도착하여 오후 9시부터 저녁집회가 시작되어 다음날(금요일) 오후 4시에 수료식을 하고 4시 30분에 기도원을 출발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준비물은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세면도구이고 복장은 충현훈련복에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점수는 교육국에 비치한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23일에 시작한 '94년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금주에는 14교구(5월 9일(월)부터 14일(토) 12시까지)이다.

우리는 본문의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잔이 이제 가득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나머지 11 제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내어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희생제물로서 내어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적의 손에 잡히면서도 예수님께서 단 한번도 저항하지 아니했습니다(롬 4:25).

1.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

본문 47절에 "말씀하시길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큰 무리가 파송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리들이니까? 첫째로 그들은 폭력에 의존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53절에서 우리는 예수

님이 전쟁과 폭력은 기독교 정신과 서로 배치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까지를 보면 기독교의 본질은 전쟁이나 폭력과는 대조가 되는 다시 말하면 화평, 평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운데는 산헤드린에서 보내진 사람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또 레위인에게서 파송된 경비병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성이 있었지만 무리 속에 있을 때는 그 지성의 양심은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군중 속에서 시몬 베드로도 바로 이 폭력에 의존하는 무리들과 똑같이 검을 빼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했는데 그는 아마도 주님께서 얼마전에 가르쳐주신 말씀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눅22:36)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이런 폭력에 대항하고 그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이 폭력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폭력을 폭력으로 짓누르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질 때에 이 폭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무지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군중은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군중심리대로, 감정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다수만 믿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숫자만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다수라는 것을 마치 진리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신앙과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신앙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보다 다수인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길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군중이 가는 길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소수이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신앙과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2.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49절에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간의 제목이며 핵심이 되는 거짓 사도의 입맞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인사입니다. 각 나라의 인사를 보면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본문의 가롯 유다는 그 당시의 관습대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살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고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뿔뿔한 칼이로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그는 속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만 그 추구하는 것이 다름

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인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뒷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인사는 배신의 인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잡으려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군호였습니다. 우리는 이 배신의 인사에서 가롯 유다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가롯 유다의 모습만 보면 안됩니다. 가롯 유다의 얼굴이 바로 저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얼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총헌강단



거짓 사도의 입맞춤

(마 26:47-59)



신 성 종

<목사·당회장>

3.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본문 50절에 배신자 가롯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신을 사랑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를 "친구여" 하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심으로 '친구여' 하고 불렀습니다. 배신을 사랑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맡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의 유명한 불멸의 명언을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4. 검으로 망할 검을 가진 자들

예수님께서서는 52절에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검, 칼이 필요하고 정당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약탈과 강탈을 막기 위해서 이

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유지시키는 데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검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 그 유명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총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는 총칼로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폭력에 의존하면 결국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을, 권력을 갖고 사용하게 되면 결국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국군장병들을 위해서, 혹은 경찰들과 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둘째로 폭력에 의존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권력을 의존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성을 잃게 되고 맙니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나치 정권의 경우나 일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군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폭력은 또 폭력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폭력을 막아야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을 통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5.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는 예수님께서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 뒤통에 태인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 여러분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에게서는 누구나 자기 뒤통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따라 갈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입한 오순절의 귀한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의 교훈은 기도 안하면 제자들은 물론 어느 누구도 별수없이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도 안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사들도, 장로들도 별 수 없습니다. 기도 안하면 어려운 일 생기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다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서 성령충만하여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라도 가롯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거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다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의 의미



웃음이 사람만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웃음만큼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도 없다. 남을 비웃는 웃음이 있거나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주는 미소도 있다. 기뻐서 깔깔대며 웃는 웃음이 있거나 하면,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깔깔웃음도 있고, 호탕한 너털웃음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 너무 딱딱하고 엄하다. 마치 무슨 감정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옛말에 '일소일소 일노일노(一笑一怒一老)'라고 했단가? 우리의 얼굴이 좀더 미소여름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면 보다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글 / 신 성 종 목사

충현

교회에 새가정부를 두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태초에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하시며 가정에서의 삶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 주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참으로 이 비밀은 크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작년에 새가정부 특강시간에 들은 내용 중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요즘 아파트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들면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어 그 가정을 보는 이마다 과연 천국을 보는 듯 마음이 동하여 분양을 받고 싶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 안에서 노력할 때는 천국 모델하우스 같지만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가정예배가 소홀해지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할 때는 부끄럽게도 천국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지옥의 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한다. 부부관계, 자

녀관계가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깊고 그러한 변화가 더 예민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 사탄은 하찮은 오해의 쓴 뿌리와 과잉 기대의 욕심 등으로 공격을 가하여 주 안에 있는 가정이라도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에베소서 5장의 부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연결된 의미를 생각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과 가정을 복종시키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결혼 전에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면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가정의 달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 모델하우스



임희순

(집사, 새가정부 교사)

우리 가정은 88년 1월 새가정부에 처음 나오게 되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대예배와 영아부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새가정부에 오니 마치 청년부 때와 같은 젊은 분위기에 가슴이 설레었다.

위기를 겪게 된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한번 생활의 조절이 필요하며,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부부간에 통일된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또 부부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란도 신앙의 격차와 신앙방식이 달라 그것을 맞추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새가정부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신배 가정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분반공부시간이 있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다른 가정의 삶을 듣고 우리 가정의 삶을 내놓으며 바람직한 것은 각자의 가정에 서로 적용시켜 보는 것이 참 유익했다. 또 자녀에게만 치중되었던 우리 부부의 관심이 부부간의 관계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었다. 매주일 가정에 관한 설교와 분반공부, 특강과 수련회, 절기마다 있는 각종행사들은 우리 가정에 활력이 되어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은 남편이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새가정부에서 배운 것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을 마치면서 터툴리아누스의 글을 인용하며 모든 부부가 이와같이 되길 기도한다.

"두 그리스도인이 한 소망, 한 언약, 한 제물, 한 예배로써 결합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이들은 남매간이며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이고, 한 정신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부부는 고난과 핍박을 피차에 함께 나누며 또한 다시 일어나는 기쁨을 함께 나눈다. 둘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으며 피하는 것도 없고 또한 피차에 귀찮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는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약물 남용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자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임성환

(목사, 전도위원회, 제2교구, 제23교구, 사랑부 지도)

요즘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침체의 늪을 벗어 나오기가 무섭게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의 분위기를 타고 술판세가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급증하고 있는 술소비량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이 끼인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판매량이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류업계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자녀들은 끊임없는 유혹의 문화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류의 적인 음주와 흡연 그리고 마약은 절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행히 지금 온 세계는 흡연구역을 정하고 질주운동과 마약류 퇴치운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마약 국제전선망이 구축되어 마약범죄의 동향과 약물 오용 실태 등의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게 되어 마약퇴치 운동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나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환각물질과 본드흡입은 탈선한 10대 청소년들 뿌류에서 이미 급증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땀은 주사 바늘

은 영원히 뺄 수 없는 바늘로 변하고 마침내는 인생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가는데도 계속 유혹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를 알고 났을 때는 이미 아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늦다는 데에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끌려 다니던 어떤 마약환자는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마약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무서워요, 제발 제발..."이라고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독성 강한 마약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파고들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그렇게 무서운 마약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접근되고 있을까요?

93년에 실시한 한국청소년학회 약물사용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 4천 2백 6십명의 청소년중 66.9%의 청소년들이 술, 담배, 본드나 가스, 대마초, 히로뽀, 해진제 등의 습관성 약물중 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비교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물경험도가 높았고, 연령별 비교에서는 16 - 20세 사이에 약물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속별 비교에서는 학생, 근로·무

직청소년, 소년원생의 순서로 약물경험 비율이 높고, 학력별 비교에서는 국민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중퇴자에서 약물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았으며, 부모의 음주 흡연의 정도가 심할수록 청소년의 음주, 흡연, 본드 사용 등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3이 되었을 때 4명중 1명이 술이나 담배를, 40명중 1명은 본드나 가스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고3의 경우에는 30명중 1명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있었으며, 8명중 1명은 담배를 매일 피우고 있었으며, 66명중 1명은 본드나 가스를 1주일에 한번 이상씩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먼저는 몸매를 추구하는 여인들에게는 살빼는 약의 가면을 쓰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잠 안오는 약으로, 업무에 쫓달라는 자들에게는 피로회복제로, 때로는 유흥가에서 술취하지 않는 약으로 술잔에 넣어 쉽게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1년 기간을 구순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지나친 자녀보호 즉 과잉보호에서 발생되는 좌절이 마약 상용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 우상주의 시대에 큰 경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길 유일한 해결책은 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롬 6:13, 14)의 말씀을 좇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 청소년은 약물남용에 노출되어 있어 주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믿으며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이겨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용기를 가졌기에 매번 "기록되었으되..."라는 답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을 만하며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창 3:1) 질문하는 자들을 향하여 용기있게 "나는 저희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 한 것을 만지지 않고"(교후 6:17),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 10:31)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됩시다.



가정 세미나 가정의 달을 맞으며 새가정부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가정사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가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날인 지난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 신성중 목사 : 9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및 종강예배 인도,
10일(화) 검찰복음화대회 설교,
11일(수)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특강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사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가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시사 교회의 지도자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4.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며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에 안정을 주시옵소서.
5.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피시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1-4)

할 랠루야,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울러 날마다 부족한 사람과 애굽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충현의 온 성도들, 선교동역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1993-94학년도 학사 일정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학년도에도 부족한 사람이 교회성장학을 강의 중에 있으며 일곱 명의 수단인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학년도 신학생 총수는 약 170명에 이르며 그 중에 약 50명 가량이 수단인 학생들입니다. 요르단을 비롯한 레바논, 시리아, 이란, 팔레스타인 등 기타 아랍 국가에서 유학 온 아랍인 유학생들도 큰 열매가 됩니다.

금년도 신학교 졸업식은 5월 27일에 있게 될 것이며 금년도 졸업 예정자 수는 주야간 합쳐서 40명입니다.

그리고 수 년전부터 진행 중인 기숙사 신축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부터는 신학생들이 신축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카이로 한인교회의 자매교회인 마가가 지역의 K교회를 비롯, 애굽의 농촌교회들과 헬완 지역에서 개척중인 K교회, M교회 그리고 카이로 변방 피라미트 지역의 T교회, O 교회, 카이로 동북방 지역 교회, Z교회 그리고 델타 지역의 G교회 등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부흥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현지인 사역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중에 꾸준히 부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특별 후원하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얼마 전에는 카이로에서 약 200Km 남쪽에 위치한 콤파다르 마을과 그곳 지교회를 방문하여 의류 283점을

● 이집트 / 이준교 선교사 ●



애굽은 이제 여름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5개월 동안은 낮기온이 섭씨 38-42도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전달하였습니다.

카이로에 올라와 있는 수단인 수는 2백만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난민들입니다.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수단인들에 대한 선교 역시 매우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인 선교센터를 통하여 현지인 동역자와 함께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단인 신학생들과 또한 저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통한 자체적인 모임 곧 정기예배 성경공부모임을 가지게 하며 또한 저들에게 의료(진료) 선교도 실시하며 그들을 위한 직업훈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굽에 올라와 있는 저들 수단인들을 위한 선교가 매우 시급합니다. 남부 수단에서 올라온 난민들 가운데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잘 인도하고 지도하지 못하면 이방종교인 이슬람에게 저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현상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로 한국 종합 선교관 건립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선교관 건물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총 건평 720평을 건립할 것을 계획합니다. 본 선교관을 통하여 계획하고 있

는 주요 선교사역은 첫째로 애굽 현지인 목회자 재교육 및 연장교육 프로그램, 두번째로 전문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현지인 교회 교회학교 교사 훈련 프로그램, 세번째로 수단인을 위한 수단인 훈련센터로서 200만 명이 넘는 수단인을 위한 선교로 수단인들을 위한 선교는 이집트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할 수가 있으며 저들을 위한 전도집회, 예배모임 기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수단 난민들을 위한 의료선교(진료) 프로그램과 카이로 한인교회 및 한인 유아교육원을 위한 것으로 카이로 한인교회는 1977

년 6월 설립 이래 지금까지 미국인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집회를 가질 수도 없을뿐 아니라 교회행사를 계획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선교관이 완성되면 이곳을 통하여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 한인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부활주일 부활절 새벽예배를 카이로 한인교회를 비롯한 미국인 교회, 애굽인 교회, 독일인 교회, 영국인 성공회 등 5개 교회 연합으로 마이다 미국인 학교(CAC) 운동장에

서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인 교회 담임 Dave Petrescue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이 선교사는 기도순서를 맡았습니다. 카이로 한인교회 성가대가 찬양순서를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동지역의 회교권에 있는 카이로 한인교회의 역할은 한인들의 복음화 차원 그 이상입니다. 회교권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10차 애굽 복음주의 교단 총회(나일대회)가 지난 4월 18일부터 한 주간 동안 모였습니다. 새로 신축된 애굽복음주의 신학교 대 강당에서 모였습니다. 새로운 당회장에 미니스 알델누르 목사(카스르 도바라 교회 담임)가 선출되고 부대회장에 이밀 자키 목사(쿨랄리 교회 담임)를 선임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선교 차량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에 좋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감사한 것은 금년에 저희 두 자녀 석신과 석현이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석신은 캔터기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에서 공학석사학위(기계공학전공)를 받게 되었고 차남 석현군은 역시 같은 대학에서 기계공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여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남인 석현은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감사한 일은 부족한 사람이 미국 플로리다 주 소재 Heritage 대학으로부터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굽은 이제 여름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5개월 동안은 낮기온이 섭씨 38-42도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부족한 사람과 가족 식구들의 건강과 영력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 5. 1.

이집트 선교사 이준교 목사 드림

선교지에서 온 소식

